



◀무위사 극락전 내부. 연화문의 우물천장과 장엄미 넘치는 벽화가 서방정토를 우리 눈 앞에 펼쳐놓는다.



### 월출산 무위사

정면 3칸 측면 3칸의 겹처마 맞배지붕. 배흘림 기둥 위에 하나의 지붕을 받치고 있는 공포 건물의 외양은 이렇듯 감명합니다. 하지만 선 굵게 흘러내린 맞배지붕은 단순히 비바람을 가려주는 구조적 기능을 넘어 또 다른 하늘이 되고, 드러내 놓고 멋부리지 않은 부재들은 꾸밈없는 당당함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오만해 보이지 않고, 예스러우면서도 부박하지 않기로 한 스승의 일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단지 우리 것이고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적으로 입에 발린 찬사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위사 극락전 앞에서는 국보 13호 또는 조선초기의 대표적인 건물이라는 설명이 오히려 거추장스럽습니다.

한편 이 건물의 내부는 위아래는 또 다른 공간을 펼쳐 보입니다. 연화문으로 장식된 우물천장.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좌우로 협시한 아미타불과 후불벽화. 후불벽 뒷면의 수월관음도. 동쪽벽면의 아미타네영도(모작) 등은 서방 정토에 대한 중생들의 희구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들에는 건물이 완공된 뒤 한 늙은 거사가 찾아와 우물 동안 들여다보지 말 것을 당부하고 그랬다고 하는 전설이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49일이 되면 날 궁급증을 참지 못한 주지가 문에 구멍을 뚫고 보니 파란색이 빛을 뿜고 그림을 그리다가 관음보살의 눈동자를 미처 그리지 못하고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배어난 벽화가 있는 절에는 이와 유사한 전설이 많습니다. 인위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겠지만 현재 후불 탕화와 그 뒷면 벽의 수월관음도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보존각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천도는 그 필선에서 회화적 분방함을 강하게 드러내며 바라보는 눈길을 아득한 하늘 저편으로 끌어올려 주는 듯했습니다.

극락전 옆으로는 자그마한 두 채의 건물이 있는데, 하나는 신신각이고 다른 하나는 돌미륵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연석 그대로를 광채로 삼아 미륵부처님을 들을새김해 놓았습니다. 수수하다 못해 부박할 정도인데, 미륵을 향한 보살사람들의 정성이 살갑게 다가옵니다. 이 미륵불은 본디 인근의 수암마을에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아직도 무위사는 마을 잘 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다. 아주 오랜 옛날 이곳 사람들이 돌미륵을 만들었듯이 불사를 즐기고 있었습다. 현재 새로운 벽화 보존각 공사가 한창인데 단순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무부수로 일을 하는 마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서 삼천 배 만 배에서 느낄 수 없는 순수한 믿음을 봤습다. 그들은 지금도 미륵불을 만들고 있었고 돌 속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다.

초겨울 햇살이 감나무 가지에서 꽃으로 피어나는 남도 길. 내 마음 속 좋은 그림으로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글=윤재학 기자, 사진=박보하(사진가)

습니다. 아직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은 단풍 겹으로 동백잎은 천연역스럽게 푸르렀고, 드문드문 매달린 팽나무 연록색 잎은 신록인양 고왔습다. 한 순간 계절감이 사라지면서 시간 밖의 세계로 들어온 느낌이 들었습다. 시간은 직선으로만 흐르지 않습다.

무위사는 극락전 하나만으로도 견줄 데 없는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흉내낼 수 없는 단 하나. 그렇다고 주변의 것들을 초라하게 하는 법이 없는 우뚝함. 최고 행위로서의 무위(無爲)란 이런 경지를 두고 하는 말일 것습다.



◀수암 마을에서 옮겨온 돌미륵. 이상 세계에 대한 민중들의 희구를 보는 듯습다.

## 망상도 참됨도 다 내려놓은 '무위(無爲)의 땅'



◀무위사 극락전(국보13호). 맞배지붕에 주심포식 건물로 조선초기의 대표적 건축물이다.

“그대, 보지 못하였는가. 배움이 끊어진 한가한 드인온.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眼不見 絶學無爲閑道人 不除妄想不求眞).”

영가 현가(永嘉玄覺, 665~713) 스님이 육조 혜능의 회상에서 깨달은 바를 노래한 '증도가(證道歌)'의 첫부분입니다. 무위사(無爲寺) 가는 길. 호남선 기차에 흔들리며 '하릴없음(無爲)'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들 잠시나마 맛보았습다.

한반도 남서쪽 그트머리의 갯마을 강진. 이름만 떠올려도 영광의 시와 포구의 갯내음이 귀와 코에 그이는 땅. 근심 걱정과는 1만 8천리나 떨어진 듯 견안히 누운 산과 밭 빈 들을 배경으로 불꽃처럼 솟아오른 월출산을 돌아다니 그곳에 무위사가 있었습다. 월출산 남쪽 자락. 산과 들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곳에 없는 듯 우뚝했습다.

무위사의 장건 연대는 천년 훨씬 저쪽입니다. 사적기에 의하면, 신라 진평왕 39년(617)에 원효 스님이 관음사로 창건하였고, 통일 신라 때인 현강왕 1년(879)에 도선 스님이 중창하여 길목사(路末寺)라 했다 합니다. 오늘날 이름을 얻게 된 때는 조선 명종 5년(1550) 태감(太監)이 4번째로 중창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바람을 쫓아다니는 낙엽 봄에 섞여 잘 마당을 물었

인주사 전화:(02)732-2403~4 팩스:(02)739-7565 E-mail: minjoksa@chollan.net

◆빌리지 주문을 받습다.

### 문수기도공덕



문수보살을 부르면 그 공덕으로 지해가 총명해지고 맑아진다.

문수보살님께 기도한 공덕으로 카피를 얻은 이야기(영험담)와 부록으로 문수보살경전이 실려 있습니다.

협정스님 역음/ 4x6판 208쪽/ 값 6,500원

### 관음기도공덕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공덕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한 공덕으로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 이야기(영험담)와 부록으로 '관음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윤정희 역음/ 4x6판 208쪽/ 값 6,500원

### 지장기도공덕



지장보살을 부르면 그 공덕으로 지옥고에서 벗어나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지장보살님께 기도한 공덕으로 죽은 자의 원한을 풀어 주고 지옥고를 면한 이야기와 부록으로 '지장경'이 실려 있습니다.

민성우 역음/ 4x6판 224쪽/ 값 6,500원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왕초보, 불교박사되다**



신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불교에 대한 상식과 예절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처음엔 초보였습니다.

석지현·임지·윤정희 지음/ 4x6판 320쪽/ 값 7,500원

경전속에 들어 있는 불교명언 300가지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인색하거나 탐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욕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감지 말라.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석상우·석지현 역음/ 4x6판 180쪽/ 값 6,000원

부처님께서 남기신 주옥 같은 명구!  
마음을 열어주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행복은 꿈과 같은 것이다. 행복은 남기로운 것과 같은 것이다. 행복은 마음 붙은 법과 같은 것이다. 행복은 바림과 같고 어둠과 같고 검고 같은 것이다.

협정스님 역음/ 4x6판 170쪽/ 값 6,000원

죽은 이를 위하여 49재를 지내는 까닭  
**영가천도와 49재**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극락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인가? 49재를 지내면 정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책은 매우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에서 물주진 권스님 지음/ 박연희 지음/ 4x6판 286쪽/ 값 6,000원

**불교최초의 경전!**  
숫타니파타

석지현 역음/ 신국판/ 값 8,500원

법구경  
석지현 역음/ 신국판/ 값 6,500원

대반열반경  
강기희 역음/ 신국판/ 값 6,500원

아함경  
문연스님 역음/ 1권,2권 각각 값 7,500원